

2021년 8월 15일 주일말씀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먼저 알고 이루며 살아가

시대복음)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먼저 이루어라

그리하면 너희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리라

먼저는 신령한 역사요, 그 다음은 육에 속한 역사니라

전체찬양)

이상세계2

오늘도 온 인류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일이에요. 찬양이 이상세계 이룰려면 젊은 자들 모두 몰려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세계는 젊었을 때 이룬다. 새역사는 젊은자들이 탐험하고 도전하고 힘이 있어야 도전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할때도 유전자도 최고 힘있는 것이 새역사 이룹니다. 최고의 힘있고 능력있고 기력있는 유전자가 의학적으로 보면 최고 1등한 힘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확대 시켜서 시대를 보면은 젊은자들이 새로운 역사의 생명의 유전자가 되어서 역사를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시고 모두 새역사로 오너라, 젊은 자들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자!

햇그늘 다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부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젊었을 때 불렸고, 예수님도 젊었을 때 불렸고 미리 준비하고 예비 시켰죠. 다윗도 솔로몬도 전부 다 젊었을 때 불려서 역사를 시작했죠.

나이를 먹으면 마치 이삿짐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됩니다. 젊었을때는 무조건 힘이 있으니 뵙니다. 선생님도 새역사를 발견해서 그때부터 준비하고 34살때부터 시작했죠. 예수님은 33살, 선생님은 34살. 바톤을 잡고 뵙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자는 다 맞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와서 새로운 나팔을 불자. 주님이 살고 계신다.

오늘 창조목적 말씀 나가죠? 동일하게 중고등부나 주일예배 전체가 창조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줄거예요. 얼마나 창조목적이 큰가.

전체가 찬양단이 되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적 가사, 곡, 지휘 다 100프로 하나님이 줘서 하나님이 노래하게 만들어서 100프로 다 맞는 거예요. 내용도 곡도 삼위일체가 주고. 100프로 하는 것이지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

이제 성경 한군데 더 보겠어요.

요한 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하니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먼저 이루어라 그리하면 너희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지리라 먼저는 신령한 역사요, 다음은 육의 역사니라.

창조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모두 우리는 배워서 알아요.

그래서 주제말씀이 하나님의 창조목적 먼저 알고 이루며 살아가

이것부터 어렸을때부터 이루고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의롭게 할 수 있는 주권을 주니까.

창조목적은 커서 결혼해서 이루는 영육의 이상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 보겠어요.

지난 주 말씀이 깨끗이 하라는 말씀인데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깨끗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왜 사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삼위의 절대신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살아야 되니까.

먹는 목적, 사는 목적이 있죠. 사람들도 목적이 절대 있어요. 목적이 없으면 사는 보람도 일하는 보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 생활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구원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때마다 하는 거예요. 의사가 수시로 고치듯이 필요할때마다 밥을 먹듯이. 보통 사람은 3끼 먹죠? 그런데 잘먹는 사람은 수시로 무시로 먹습니다.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처럼 항상 먹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먹다가도 자기가 시험 들어요. 너무 먹으니까. 하나님 축복이니까 괜찮아요. 먹고 잘 뛰면 되니까. 지금은 엄마들이 안 먹으면 혼내잖아. 왜 말랐냐고. 너무 먹어서 먹고 뺎고 그러는데.. 이와같이 목적이 있으면 해야죠. 선생님도 어렸을 때 닥치는대로 다 먹었어요. 흠, 돌 빼고 다 먹었어요. 나무도 막 깨물어 먹고, 식물성 달짝찌끈하면 다 뽑아서 먹고. 새순나면 달짝찌끈해요. 다 뜯어먹고 살았어요. 나중에 나도 시험들었어요. 내가 짐승이냐, 뭐냐.. 하루에 7-8번씩 밥을 먹었어요. 풀 한 짐하고 밥먹고.. 힘이 좋을때는 간과 쓸개에 엄청난 힘을 내니까 밥이 잘 녹아버려요. 뱀이 개구리 먹으면 바로 녹잖아. 운동선수도 잔뜩 먹고 바로 녹아지잖아. 내가 먹는 얘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일, 수요일, 새벽예배로 충분하지 않아요. 혼자 성경 읽고 막 땁니다. 열심히 잘 땁니다. 섭리사도 아주 말씀파들이 있는데 말씀 좋아하는 사람치고 안 뛰는 사람이 없더라구. 음식 많이 먹고 안 뛰면 비만증이죠? 5시 후에 안 먹으니까 그냥 살이 빠져요. 그전에는 아무리 운동해도 5시 이후에 먹으니까 안 빠지더라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것이 잘 먹는 것 좋아해요.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산대요. 나도 여러분들 만나면 막 주잖아요.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줄께하고 아무 식당이나 가서 내 이름 대고 먹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신앙의 성장기라 엄청나게 말씀을 좋아한다구. 지금은 세상의 철학 강의 안 듣잖아. 그만큼 성장 되어서 그래요.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줘야 돼요. 말씀을 맛있게 잘해줘야 해요. 말씀 잘하는 사람은 서론에서 푹푹 찌르고 들어가요. 선생님도 1분안에 불을 막 집어 넣는다구. 말씀 잘하는 사람은 서론에서 말씀 푹푹 들어가요. 시대 말씀을 기본으로 배워놓고 그때마다 성령과 의논해서 말씀해야 신비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그때 그때 지체하지 말고 역시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좋아해야 말씀 전하는 자가 신이 납니다. 단상에 보면 다 표가 납니다. 음식 대접하고 있는데 그 음식 남기면 다음에 절대 안줍니다. 내가 차를 대접하면서 꼭 음식을 주죠. 대개 보통 사람은 차에서 끝나요. 왜 그런고 하니 내가 어렸을때부터 다방 가끔 가면 물만 주고 말아요. 아니 이런 사기꾼들. 건더기는 다 먹고 물만 주냐고. 사기꾼들이 운영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다방은 쓴거 단거 물만 대접하는 거여.

내가 느꼈기 때문에 꼭 차 대접할 때 깨물 것을 줍니다. 부침개도 주고. 나는 그래서 역시 푸짐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대접 받으면서 먹다가 남기면 반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싫어하는구나 하고 옆에 먹을 것을 쌓아 놓고도 안줍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싸가겠어요 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시네요 하면서 더 많이 싸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혼나면 힘이 없고 낙심해요. 월명동 오면 어떤 놈이 혼나는가 그것을 배우면 됩니다. 선생님이 시킨대로 안하면 혼납니다. 어제도 SS가 있어. 옆에 애가 재도 볼찰줄 안대요. 그럼 나랑 같이 차자고 해서 애는 축구화를 가지고 왔더라구. 신부처럼 입고 다니는 애가 축구화를 가지고 왔더라구. 내가 패스해주고. 어제 볼을 15골을 넣었어요. 고등학교때 2년동안 축구했대요. 역시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된다고. 옆에 있는 작업팀들은 10년 15년씩 축구 했어도 다리가 안 돌아가. 안되니까 안타깝고 볼썽하더라구. SS때부터 배워야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잘 할 것을 믿어' 이렇게 하면 설교 1시간 보다 낫다구. 못한다고 하니까 하기 싫은거야.

저희 아빠도 볼을 잘 찼죠? 너희 아버지는 너만큼 못했어. 앞으로 외국 가서도 공부하고 선교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내가 기대한다고 했어요. 4년동안 공부한대요. 15골 넣었으니까 15명은 전도할거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 취급하니까 안 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요가도 배워야 잘해요. 나도 보면 요즘에 축구한 것이 아니예요. 나는 60년 했어요. 발이 아예 그렇게 축구하게 돌아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생명을 패스하면 여러분과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먼저 이루지 말고 하나님 목적 먼저 이루자. 자기 목적 먼저 이루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못 이루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너무 오래 걸려. 하나님 목적 이루면 빨리해요. 자기가 자기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 함께 안해서 오래 걸려. 너가 내 목적을 이루어야 금방 너 목적도 이루어진다. 자기 목적을 이룰 필요가 없어. 하나님 목적 이루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요즘 외부 사람이 몇 명씩 옵니다. 코로나라서 엄격하게 합니다. 예방주사 맞았어도 걸렸다고 티비에 나오더라구. 극적으로 조심하는 사람은 안 걸리더라구. 극적으로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베풀려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나도 섭리인 말고 바깥 사람들에게 베푸니 받을 것 다 받고 하더라구. 알아보니깐.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줘야 해요. 하나님이 90지분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만큼 그만큼 존재하려면 그만큼 도와야 하고 인생을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돼요. 많은 지분을 가지려면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절대 하나님 믿고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에게 지분도 많이 줍니다. 90프로까지 막 준다고. 막상막하로. 이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이루어야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물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자기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신론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서 뺨치며 내가 말해 줬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을 모르면 무식한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제일 무식하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자기 주먹이나 믿고 하는데 망치로 딱 때리면 바로 부숩니다. 환난 한번

있으면 최고 많이 달달달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떨어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만 이루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안 알아 줍니다. 우리는 천주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원성이 없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차지한거여. 여러분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휴거 된 것이 깨지겠어? 휴거가 깨지나? 안깨 지지. 쉽게 이룬 것이 아니고 엄청난 수고와 애쓰고 지분을 했던 말이에요. 인생살이 최고 좋아하는 최고의 사랑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퍼 부었으니.

타락했으면 다시 열심히 하자고 하지, 쉽게 그렇게 안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불신했다고 우리가 개지랄 소지랄 다해도 하도 많이 길러봐서 압니다. 선생님도 그러합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자책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낙심하는 자는 뒤지게 혼나요. 못났어도 잘났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혼나도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께 안되면 성령님께, 성령님께 안되면 예수님께, 예수님께 안되면 나에게 묻습니다. 너 일어날 자신있어? 하면서 다시 뒹니다. 우리는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섭리 나간 사람들이 우리를 꺾는다고 하는데 꺾어지나, 안 꺾어지지. 개미가 코끼리를 꺾는다고 해도 허황된 얘기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육신이 하나님 사랑하고 영도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믿음도 희망도 기다리다가 지겹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지겹지 않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절대 삼위일체 사랑.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자들 사랑. 하나님 창조한 만물들 사랑하며 대해주기입니다. 절대 하나님 사랑을 절대 안하면, 아담과 하와가 깨진거예요. 만물도 익어가야. 인간도 자라는 기간은 익는 기간. 과일도 성장 기간이 있고, 익을 때는 새파란 사과가 빨간 사과가 됩니다. 보름 동안에 맛이 드는 거예요. 과일 사올 때 맛 없는 것은 과일 발효를 시켜야 해요. 자체에서 자료가 들어 있으니까 포도당 역할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벌들이 수백가지 종류를 물어웁니다. 저장해 놓고 꿀로 되는 기간이 있어요. 꿀로 되는 기간은 절대 손대면 안됩니다. 완성되면 꿀이 되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사람도 되는 기간, 성장하는 기간, 과일처럼 익는 기간이 있어요. 아담 하와에게 성장하고 완성된 다음에 변창하고 먹고 살아라고 했죠?

성장기간이 있어요. 섭리안에서도 왜 사명 안주냐고. 나가서 사탄의 왕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요도방정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때를 쫓아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신앙이 충분히 성장기간, 익는 기간이 있어요. 과일이 맛드는 기간. 과일이 성장기간, 익는 기간, 맛드는 기간 딱 3단계인거예요. 신약인들은 성약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을 한번도 안 읽은 무식한 자들이예요.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그 다음에 천년 혼인잔치기간이면 딱 7천년을 맞추는 거예요.

창조목적은 하나님을 절대 유일신으로 사랑하고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담 하와 깨지듯이 깨지고, 그 후에도 가인이 하나님을 절대 사랑치 않아서 가인이 된거예요. 섭리사 나간 자들도 하나님을 절대 사랑치 않아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사랑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더불어 사랑할 때 범세계적인, 범영원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들은 얘기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성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섭리역사도 이성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목적 먼저 이루고 너희들 것도 이루어라. 이와같이 모세때도 보자구. 모세 절대 사랑치 않으니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것을 금해 버렸죠. 어느 시대든지 삼위와 하나님 보낸자 절대 사랑하지 않으면 역사가 꺾장나는 거예요.

신약 시대때도 절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사랑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죠. 아예 들어오는 것을 금해버렸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절대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시대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셨을까. 일곱 번씩 일흔번씩 사랑하셨죠. 사람들은 몇 번 못참고 한번에 버려하죠? 그래도 우리는 많이 고쳤죠?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얼마나 귀한가 하니 인간이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출세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내 목적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 토끼 길러서 잡아먹고 그게 내 목적이었어요. 그전부터 나 그럴려고 했다고 간증했잖아요? 그게 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은 하나도 내가 못했어요. 지금 산짐승 기르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만 43년동안 이루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룰려던 것도 다 이루어졌다고 나는 말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이루어 드리자!

나는 산속에 가서 면서기라도 먼저 해볼려고 공부했잖아. 공무원 시험 보려고 초등학교 책을 갖다놓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웃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비웃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비웃고. 초등학교 책에 시험 문제가 안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다시 읽자고 해서 읽었어요. 성경의 최고 메시아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 되고 싶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메시아하고 싶다고 해서 합격했어요. 예수님께서 너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와같이 그런 것에서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된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창조목적에는 사랑입니다. 믿음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창조목적 사랑하나.

하나님의 만족하도록 사랑을 해드리면 끝나요. 지구촌에 최고 큰자입니다. 한명만 뽑지 않고 많이 있을수록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성령님 성자 보낸 자를 만족하도록 사랑한 자는 지구촌의 가장 큰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가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뭐가 생기죠? 하나님의 최고가 뭐고 하니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죽지를 않아요.육신이 아니에요. 영원히 영원히 안죽어요. 사랑을 안하면 영원히 죽어버려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 안해서 죽어버렸잖아. 상실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영원토록 죽지를 않아요. 사랑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사랑은 창조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목적 뭐죠? 핵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산다. 천사에게 심부름 시켰는데 못하고 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 자기 죽는 날을 모르고 산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어둠으로 가는 것이 죽은 거예요. 영원히 생명체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해서 사랑해서 평생 살잖아. 돈있다고 평생 살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헤어지고 끝나버려요. 만물도 새들도 동물도 나무도 사랑이 없으면 죽더라니까. 관심과 돌봄과 자기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손질해주고 돕고 퇴비하고 비바람치고 묶어주면 산다구. 안 죽어도 보기 싫게 크더라. 그죠?

사랑만이 영원히 산다. 사랑이 그렇게 크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사랑 보파리예요. 창조목적 이루면 영원히 안 죽는다. 신약때도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구약때는 모세 절대시 믿었지만 새시대를 받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확실하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만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 하도록 나를 만든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듣고 순종해서 만든 거예요.

나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사람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는 아무리 간판이 있어도 안 들어와. 그러면 나의 간판을 술술 내놓으면 나에게 지죠. 세계적인 군중이 있는데.

사랑은 자본이 필요 없어. 어떤 얼굴 잘생기고 못생기고 필요 없어. 무조건 하나님만 사랑하면 얼굴이 변해 버려요. 하나님 사랑하니 얼굴이 확 변해 버리더라니까. 내가 의심할 정도로 얼굴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완전히 동그랬는데 완전히 길쭉하게 만드셨더라구. 끔찍한 환난을 8년동안 받은 자였어요. 부모가 한시도 놓지 않았어요. 그런 환난을 이기니 하나님께서 확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표적이 많은데 표적 하나만 딱 대라면 뭘니까? 나를 본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표적이라고 했죠?

사람도 자기 목적을 이룰 사람을 찾습니다. 친구도 찾고 섬길 자를 찾고 인도자를 찾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었어요. 갈등속에 헤매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붙는자만 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지상에서도 황금천국을 살고 영원토록 영혼도 황금천국의 삶을 산다는거예요.

인간은 각자 자기 목적을 말하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보낸 자 절대 사랑. 영원한 사랑. 사랑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는 죽지 않는다 했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산다고 했어요. 사랑의 낙이 가장 크죠.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가장 큼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자들을 위해 같이 행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습이 없다고 했어요. 전지전능하셔서 연습이 없고 그대로 매일 행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연습하고 행합니다. 하나님은 연습할 시간도 아예 없노라. 그대로 행하는 실존의 역사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배운 다음에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천지창조 이후에 한번도 연습한 일이 없으시대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목적은 메시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목적이다! 그 말씀을 믿고 외치자고 했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못 이룹니다. 이루기만 하면은 영계가서 말했을 때 두 번 다시 얘기 못하게 하는 말이 지구 전체를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이 휴거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천국에는 황금성을 주더라구. 어마어마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게 된거예요.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마다 행해 봐야 알아요. 그 사랑 때문에 얻은 거예요.

섭리사도 사명을 하는 자들을 보면 절대 삼위와 보낸 자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꾸 큰 일들을 맡기더라구.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사람의 삶은 78억명의 이상적으로 사는 전체 삶보다 혼자 하나님께 받고 사랑하는 삶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주장하는 뺑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한마디 더 할게요. 78억명이 100년을 사는 것을 다 모아봐. 휴거된 자는 그것보다 더 영원히 살잖아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뭘 그렇게 좋아서 삽니까. 물질도 한계, 명예도 한계, 나중에는 여행 다녀도 곤고하다고 합니다. 그런것보다 완전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사는 삶은 영원히 영원토록 사는데 어떻게 따라잡니까? 그래서 휴거된 사람이 휴거 휴거 하는 거예요. 지구촌에 가장 큰 단어가 휴거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루고 사니까 안 쓸수가 없죠. 믿습니까? 예수님 절대 사랑을 안해서 구약인들 다 깨졌잖아. 예수님 절대 사랑하고 살았으면 자동적으로 메시아인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이 세상 낙이 뭐냐. 하나님 절대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절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큼니다. 월명동에 베트남전에 '사랑하라~~'는 사연을 조각으

로 떠 놓았어요. 육체적인 사랑은 적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렇게도 큼니다. 하나님 절대 사랑만 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생명역사 했습니까? 못했죠. 하나님 절대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절대 사랑!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을 절대 사랑하는 것이 큼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절대 사랑의 삶이죠.

휴거된 자들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말로 딱딱 쪼개며 표현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큼니까? 한 남자, 여자가 주는 사랑도 뿔~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뿔가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들입니다.

이성의 사랑은 반지를 끼는 정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집 자체를 보화 덩어리로 만들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삶을 재벌가도 권세가들도 할수 없다. 오직 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창조목적 확실히 알고 삼위를 절대 사랑하는 삶.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아담 하와 이후로 6천년이 지나고 7천년의 역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상세계 이루는 사람만 다를 뿐이예요. 그들이 가는 곳에 이상세계로 만들죠. 이미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이 휴거입니다. 사랑의 완성이 휴거입니다. 하나님은 정녕코 이루고 맙니다. 구약은 구약으로 이루면 만족하고 신약은 신약으로 이뤄야 만족하고 이 시대는 이 시대로 이뤄야 만족하고.

이 시대는 천년동안 혼인잔치하며 육신으로도 이상세계를 이루는 때입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 지금 이루어 지는 것을 생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상적인 역사가 아니고 제시간 제때 딱딱 일초도 안 미루어 진행하시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구원자를 보내고 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니까.

모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깨닫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을 받은자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작품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얻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상세계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빈치, 르느와르, 고흐의 그림들이 4천억, 5천억씩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비할수 없는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자체가 사랑의 작품이예요. 환상을 보니 하나님의 작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꼬무락 거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요, 복있는 자요, 영원히 신부로서 돕고 시중들고 살고 있는 자요, 육신도 그 급으로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랑이 되는지 못깨달았다고 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나 쓰고 나타나니까 신랑으로 맞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큰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음식 맛이 없어져요. 나머지 말씀 또 성령으로 외치는 자들에게 해줄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다시 만날때까지 뛰고 달리며 오늘 말씀대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사탄이 뺏아가고 자신이 집어 던지는 꼴이 되죠? 안녕히 계십시오~